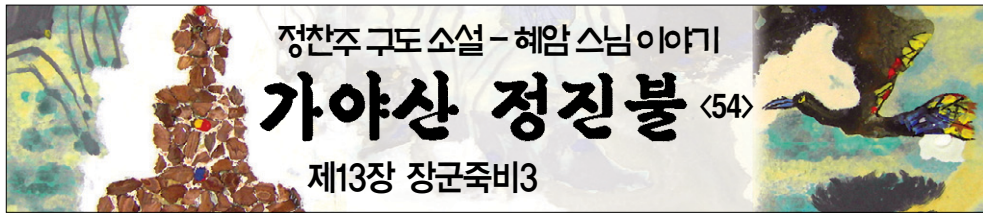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라야 중노릇도 공부도 잘되는 법”



정찬주 구도소설-해암스님이야기
가야상 정진불 <54>
제13장 장군죽비3

해암은 해인사 부방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상좌를 많이 받아들였다. 해인사 큰스님 혹은 수좌계의 대표로 존경을 받게 되자, 행자들이 서로 은사를 삼으려고 했다. 그러나 은사를 삼으려고 해서 다 은사인연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은사인연이 있으면 행자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졌다.

대학을 다니다가 인생길을 바꾸고 싶어 출가한 지도(知道)가 그런 경우였다. 해인사 공양간에서 행자생활을 하다가 무심코 산내암자인 원당암을 찾아가게 됐고, 전생의 인연이 이어지듯 해암과의 사제관계가 쉽게 맺어졌던 것이다.

행자생활 중에 맞이하는 초파일이었다. 아침 7시쯤이었다. 장작불에 가마솥 밥을 하고 난 뒤 행자생활을 한 지 처음으로 일주문을 벗어나 산길을 걸었다. 마음이 가는대로 걸어가자 이윽고 작은 암자가 하나 나타났다. 암자 편액을 보니 원당암이었다. 그는 법당으로 들어가 삼배를 했다. 법당 오른쪽에 자리한 요사가 원주채였다. 원주채 방에도 불이 켜져 있고, 토방에는 작은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었다.

그는 불췌 원주채 방으로 들어가 노스님 해암에게 삼배를 올렸다. 해암이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물었다.

“행자는 여기 뭘하러 왔는가.”

그는 해암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어떤 인연에 이끌린 듯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튀어나온 말이었다.

“은사스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자 해암이 그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말했다.

그의 대답은 뜻밖에도 진지했던 것이다. 해암은 바로 그에게 화두를 주었다. 행자에게 화두를 주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시심마를 줄 테니 행자생활 잘해서 나중에 나한테 계를 받아라.”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부터 있었던 자신의 근원, 이를 불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것을 ‘이렇고?’ 궁구해보라는 화두였다.

그런가 하면, 속인 신분으로 해암을 찾아와 얘기를 나누다가 발심하여 출가한 사람도 있었다. 진각(眞覺)이 그랬다. 진각은 사회생활을 하던 중 신사복 정장 차림으로 원당암에 갔다가 연화실에서 해암에게 다 음과 같은 법문을 듣고는 발심했던 것이다.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면서 세속에서는 잘살았으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출가하여 마음을 잘 닦아서 정신적으로 안정과 평온함을 누리면서 인종을 맞이하는 삶이 있다고 하자. 이 두 삶 중에서 어느 것이 보람된 인생이고 잘 살았던 삶이라고 생각하느냐?”

“출가하여 마음을 닦는 것이 보람된 인생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낼 것은 없다. 일주일 후에도 생각이 변치 않는다면 그때 오거라.”

“스님, 그러겠습니다.”

진각은 집으로 돌아와 일주일을 보내면서 자신의 출가의지가 더욱더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출가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결국 진각은 해암

진각이 계속되는 운력을 힘들어 하자, 해암은 해인사 위에 있는 중봉암 터로 데려가 신심 나는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내가 중봉 토굴에 살 때다. 시장 보러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만 시장을 다녔지. 캄캄한 길을 다니려면 처음에는 걷기도 힘들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그러데 같은 길을 자주 다니게 되니 캄캄한 밤에도 익숙해져 낮처럼 다니게 돼. 마음공부라는 것도 똑같은 이치니라.”

중봉암 터에는 잡초 무더기 속에 허물어진 돌담만 남아 있었다. 해암은 중봉암에서 정진하던 일이 떠오른 듯 진각에게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자상하게 알려 주기도 했다.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캄캄한 어둠속에서 생사윤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길을 헤매는 것과 같다. 그러니 부지런히 공부하는 일 외에는 달리 중요한 것이 없다.”

해암이 언제나 강조하는 법문의 요지는 금생에 안 되면 내생이라도 반드시 생사해탈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에 두타남지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암은 산길을 탈 때도 잠시 쉬는 법이 없었다. 짧은 진각보다 더 가벼운 걸음으로 앞서 걸었다.

1994년 4월, 해암의 나이 75세 때였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추대된 해암은 조계종 종단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개혁회의를 출범시키고 개혁종단을 탄생케 했다. 그때 해암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누가 만드는가 하면 마음이 만들어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운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건강도 만들고 파괴하기도 합니다. 절대로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종단이 병들었다고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개혁을 열 번을 하면 몇 할 것입니까. 다만 종단이 이대로 나가서는 기필코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 이제 종단을 개혁해서 발전시켜야겠다.’라는 것이 내 소견일 뿐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만 해왔다면 개혁이라는 말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니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만 하면 천하를 통일해 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종단의 모습이 엉망으로 변했기 때문에 개혁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 개혁이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인간 천상을 다 정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단 모습이 부처님 말씀과 달리 흐릿해지고 망가진 것이 아닙니까. 그 흐릿해진 부분을 개혁하는 것이지 부처님 법을 개혁하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개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된 부분을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가지고 밥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회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암은 어려워진 종단을 향해서 장군죽비를 들었다. 개혁에 참여하는 젊은 스님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을 냈다. 해암은 상좌 도각이 잠시 공부를 접고 구종법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 도각은 수천 명의 전투경찰이 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에워싸고 있을 때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도각은 온몸이 망가지는 중상을 입고 사경을 헤맸던 것이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겨우 생명을 연명했다. 문병 온 해암은 도각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도각은 순간적으로 만감이 교차했다. 은



그림·최문정

“남 원망하지 마라 모두 이게 너의 업보다”

사스님을 병원까지 찾게 한 자신이 못한 것 같아 한없이 죄송했다. 문득 원당암에서 해암을 시봉하던 한 순간이 떠올랐다. 삭발하고 난 뒤 거울을 보고 있는데, 해암이 거울을 해 빼앗아 던지며 말했다.

“중이 무슨 거울이 필요하나. 거울을 자주 보면 아상(我相)만 높아진다. 중은 바로 병신 같아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할 정도라야 중노릇 잘하고 공부도 잘되는 법이다.”

도각은 해암의 고구정당한 가르침이 새삼 가슴을 치는 것 같아 눈물을 흘렸다. 병원 청바지로 눈길을 주고 있던 해암이 도각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위로했다.

“남 원망하지 마라. 모두 이게 너의 업보다.”

해암의 눈가에도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도각에게 늘 ‘깜깜한 놈’이라고 질책하던 분이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백 마디 위로의 말보다 은사 해암의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도각에게 힘을 주듯 전해졌다. 그러나 도각은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다.

훗날 그때의 구종법회를 주도하던 스님 중에 한 사람이었던 효림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써 남기고 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범종주의 구종법회가 해암 노스님의 명철한 해인과 법력이 아니었다면 어찌 되었

을 것인지를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해진다. 나는 당시 구종법회를 이끈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혁회의를 출범시킨 제일의 공로는 해암 해인총림 방장스님의 묘소 역사에 기록하고자 한다. 당시 구종법회 참여대중은 모두 나의 이런 생각에 동감하리라고 생각한다.”

단식으로 맞서던 해암은 탈진하여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으나 끝내 종단 개혁에 불을 당겼다. 경찰의 힘을 빌렸던 구 총무원장 인사들이 물러나자, 곧 범불교도대회를 열고 총무원 청사에 개혁회의 간판을 내어걸었다.

그제야 해암은 다시 해인사로 돌아왔다. 오던 길에 봉암사로 갔다. 평생 선후배로 정진해왔던, 구 총무원장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세웠던 서암 중정을 만나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 종단 문제로 잠시 견해가 달랐지만 오랜 우정에 금이 가는 것을 걱정했던 것이다.

해암은 서암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봉암사 대중들에게 ‘산중 조실로 잘 모시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개혁회의에 참여한 젊은 스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암의 자비로운 마음과 배려였다.

<계속>

해인사 부방장 취임 후 많은 행자들이 은사로 모시려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추대... ‘개혁종단’ 탄생에 영향

“학교는 마쳤느냐.”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1년 하다가 대학교를 들어가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습니다. 군대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가 제대 전에는 군중법으로 있었습니다. 복학했지만 1달 동안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출가를 생각했고, 대학교 뒤에 있는 절을 찾아가 스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해인사를 추천해주었습니다.”

“왜 출가하려고 했느냐.”

“대학을 복학해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1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 살다 보면 40대 50대 60대가 될 텐데,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이런 인생 말고 다른 인생은 없는가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해인사로 와 대적광전에서 삼천배를 했습니다. 삼천배 하는 동안 한 번도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 출가했습니다.”

해암은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 출가했다’는 그의 말을 듣고는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지만 했다. 대부분 행자들의 대답은 ‘성불하고 싶다’고 대답하는데

과 출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원당암으로 다시 돌아온 진각에게 해암은 행자생활의 지침을 내려주었다.

“행자생활을 하는 목적은 오로지 스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니, 다른 것을 보고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 스님.”

“수계도 무량한 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암은 원당암에서 해암을 시봉하고 있는 지도를 불러 지시했다.

“이 사람을 큰절 행자실에 넣어라.”

결국 진각은 고된 행자생활을 마치고 수계하기 한 달 전에 원당암으로 올라왔다. 그는 해암을 시봉하면서 운력에 나서곤 했다. 요사채를 재가선방으로 이용하면서 신도가 점점 늘어나자 공사도 많아졌다. 진각은 아침공양 직후부터 일을 시작하여 벌이 뜨는 캄캄한 밤에야 마치고 했다. 처음으로 해보는 지계질은 서투르기만 했다. 어깨가 벗겨지고 몸은 늘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행자생활보다 원당암 생활이 더 고됐다. 그래서인지 일주문을 떠나는 행자들이 부러웠다.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지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응명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감원 복산 원각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안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www.wondangam.org

태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워 내두려야
영기나 나타날도 수지를 말지이다.
불꽃이 나타날도 그해가 도리어야
비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대중사 법어 -